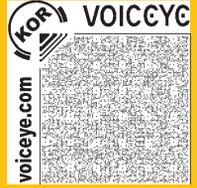


ISSN 2383-9872

밑 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5년 가을



노들마라톤

(사)노들
 노들장애인아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없어진 게 아니므로, 광화문농성 3년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3 광화문농성? 자연스럽게 끝나는 날이 옵니다
- 14 그의 끝이 미완인 이유
- 18 노란들판의 꿈, 이루어지다?
- 22 **[노들아 안녕]** 송무림, 송정규, 박누리, 김진수, 이상우, 최영은, 이수현, 이승현, 정우영

- 36 우리는 2인 1조
- 38 저는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해요
- 40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초보 활보코디의 생각's
- 42 메르스로 사망한 활동보조인, 그림자노동의 슬픔
- 46 알바는 돈이 필요한 노동자다

- 48 스물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에 초대합니다
- 49 **[장판 핫이슈1]** 현금지급제와 개인예산제, 아이고 의미 없다
- 56 **[장판 핫이슈2]** 개별 급여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고 어려워

-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읍시다"
- 62 **[교단일기]** 그래 함께 있어 보자!
- 66 나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 68 **[2015년 노들야학 모꼬지 강촌별곡]**
노들야학의 꽃, 실제 경험
- 70 내가 바로 레크레이션!

- 71 **[형님 한 말씀]**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 72 **[동네 한 바퀴]** 옆 동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소개합니다
- 76 **[노들은 사랑을 싣고]** 캠퍼프스트 이동환 동문을 만나다
-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5호 2015 · 9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간「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박세영 정민구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임입니다.

노 들 바 람 을 여 는 창

올해 노들야학은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야학은 아차산에서 대학로로 오면서 '밤 야자를 쓰는 야간학교에서 '들 야자를 쓰는 들판의 학교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에 맞춰 살아가려 애쓰기라도 한 것처럼 올해 '낮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분들을 위한 낮 수업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야학에서 점심을 함께 먹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등교시간이 야간학교 시절에 비해 많이 당겨졌는데, 어쩐 일인지 몇몇 학생분들이 점점 더 일찍 야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할 땀저와 출근길에 만나기도 하고요. 보통은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면 어느새 사무실 문을 열고 저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계신다거나 민중가요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을 거는 일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노들야학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학교가 되어갑니다.

낮 반 학생분들은 저마다 개성이 강한데요. 제일 고참인 언니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딴 생각에 빠져 내리지 못하는 일을 종종 일으킵니다. 야학에서 하교했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그 반대의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노구의 어머니가 오십이 넘는 딸을 데리고 야학에 나오시는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낮 반 학생분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학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날이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우는 날도 있지만 대체로 낮 반 교실에선 커다란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넘어 나옵니다. 지루하면 바로 티가 나고, 재미없는 건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 배워야겠다 생각하다가도 길 잃어 헤매는 언니를 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어쨌든 노들의 장막이 본격적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나 선생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글마다 필자의 개인 소개를 넣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들여다봐주세요.

광화문농성? 자연스럽게 끝나는 날이 옵니다

두 제도 완전히 폐지되면 당연히 농성도 끝!

김유미

노들야학 상근자로 일하며 노들바람을 만든다. 물론 혼자서 다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야학 근처에 있는 낙산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건강하고 싶어 한다.



2015년 8월 21일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을 한 지 3년이 되었다. 노들야학 교장이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인 박경석 선생님을 어렵게 만나 광화문농성 3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다. 인터뷰는 원고 마감 기한이 지난 어느 날, 광화문농성 3주년을 맞아 기획한 삼삼한 연대 투쟁도 지난 어느 날에 이뤄졌다. 밤 10시 30분, 12시면 문을 닫는 야학 근처 어느 카페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김유미_ 질문자

박 박경석_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공동대표

김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한 지 3년이 됐죠. 이게 광화문에서 한 게 3년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문제로 1박2일 농성, 일주일 농성 뭐 그렇게 여러 번 했었잖아요. 종각역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안국역에서 노숙하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자리 잡고 농성한 게 3년인 건데, 농성 좋아하시나봐요?

박 좋아한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순종하고 체념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가지지 못한 채 하루 하루 건디다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회는 이들에게 스스로 살아가라, 너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저는 이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삶,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 희망,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의 이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과의 투쟁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변화는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 특히 함께 움직이는 것은 부닥치는 것이고, 부닥치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협력과 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움직이고 부닥치는 것이 우리에게 농성 같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부닥침은 필연인 건데, 이를 즐길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요.

농성이라는 것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만들어내고 변화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스스로 또 자신들의 할 일을 찾게 하는 수많은 능력이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이 온몸으로 도로를 막으면서 이 사회에서 육을 먹지만, 자기에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몸뚱어리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이 집구석

에서 집을 점거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지, 이 몸뚱어리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이 점거와 농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투쟁으로 삶을 변화시켜온 역사가 있어요.

이 방식과 관련해 합법, 불법 논란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돼야 하는 것엔 동의하는데 왜 농성을 해야 하느냐. 가치는 좋은데, 그 수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오히려 수단으로 인해서 목적이 가치 절하 되는 것 아니냐. 또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수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단이 있고 목적이 명확하게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이래야 한다'는 목적, 가치를 두고 (말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권력 있는 자들, 사회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들, 얼마나 목적과 가치가 명확한지. 기득권이 정해놓은 합법적 질서의 틀을 뛰어넘어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수단이 나쁘다는 식의 말이 많이 나와요. 과연 그런가? 그 논리는 지금의 기득권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적과 수단을 분리시켜 수단의 방법론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훈계하려는 자들의 무책임함 같은 것이기도 하죠.

김 우리가 농성 1000일 되던 날부터 3주년까지 그린라이트를 했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그린라이트 하면서 육도 엄청 먹고 그랬잖아요? 육

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어요. 첫 날부터 난리가 났었으니까. 방금 집에 있던 중증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엔 그린라이트 하면서 멘탈 털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육을 너무 많이 먹은 거지...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박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죠.



경찰의 태도 문제도 있고, 소환 대상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시민들 욕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갈등이 있었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발전돼서 좀 강하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역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무기력해져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전술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안에는 중증장애인이 많으니까요.

김 교장샘이 기획했지요?

박 그것은 말할 수 없어요.

김 그린라이트 하고 욕먹을 거는 잘 알고 있었죠?

박 음... ^^ 저는 그린라이트가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같이 가자. 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하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욕을 한다면 욕을 먹어야겠지요. 오늘만 해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



어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때려죽이고 집행유예를 먹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버지를 더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아버지가 장애아들을 때려죽이도록 만들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우리 스스로 그런 사회를 용인하는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죽이는 이 사회에서 도로 하나 막는다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오히려 이 사회는 스스로 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자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도로 좀 막았는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젭니까? 욕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이 사회가, 아버지로부터 맞아죽어야 하는 이 사회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하십시오. 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걸로 묶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 맞아 죽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회에 대해서 당신은 왜 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보세요? 지금 페이스북 보십니까?

박 아니에요. 네 물어보세요.

김 안 피곤해요?

박 지금? 지금 아니면 운동이?

김 운동이요.

박 피곤한 거는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으면 사람이겠어요? 기계지.

김 나는 많이 피곤한데...

박 많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피곤함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모든 삶은 고역이에요.

(깹깹)

박 성경에 그렇게 있어. 읊기.

김 왜 이상한 거 말해요 갑자기.

박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후퇴되는 느낌들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밤 11시가 다 되어간다〉

김 농성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박 농성 처음 들어간 날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거의 11시간을 싸워서 자리를 잡은 거요.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함께 투쟁했고 1박 2일 동안 함께 견뎠고... 그리고 마침내 11시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공간을 변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서, 1년 때 모이는 것과 지금 모이는 건 다르거든

요. 우리는 조금씩 지나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어져나가는 진지와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3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공간을 한 번씩 거쳐 가고, 그렇게 지켜냈다는 것이 의미 있지요.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3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3년을 보내면서 광화문농성장이 우리 운동의 성지가 돼 가는 느낌을 받아요. 성지순례 그런 거 있잖아요. 투쟁? 그러면 광화문농성장에 가보는 거죠. 아직은 그런 기능이 잘 확장돼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겐 지켜온 공간일 수도 있지만요. 이 운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면 꼭 한 번 와봐야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꼭 한 번이라도 오라고 하니깐 이렇게라도 와서 1년이 지켜지잖아요. 이번 3주년 투쟁 때 밥을 600개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밥을 다 먹고 모자라더라고요. 대략 7~800명이 온 거죠. 내년도엔 1000명, 2000명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이런 희망 섞인 운동들을 할 수 있게 한 도화선이 되는 3년 전 11시간 동안의 투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경찰이 화장실도 못 가게 막고 있어서 '화장실 좀 가져'고 투쟁 구호를 외쳤어요. 경찰들 사이로 막기어 들어가고...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람들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기도 했어요. 휠체어리프트를 작동 안 시키고 있어서 사람들이 리프트에 매달려서 경찰들하고 싸우고... 그 한 지점을 두고 수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싸웠고 결국에 경찰들을 몰아냈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요.



김 그날 정말 냄새가 많이 났어요.

박 무슨?

김 지하철역 통로에 몇 시간을 박혀서 계속 몸싸움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려있었고, 한여름이라 폭풍 찌니깐 진짜 냄새가 막... 전 그게 기억에 납니다. 죄송합니다. 농성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다면요?

박 특별하게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장애인들 죽어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장애등급제, 부양의 무제 폐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농성장 영정 속에 있는 건데, 마치 농성이 힘들어서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할 때 기운이 빠져요. 이 죽어간 사람들이 농성 때문에 힘들어서 죽어간 건 아니거든요. 농성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그 질문은 당연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그 죽음이 마치 장애인들한테 농성장 지키라고 해서 겨울에 얼려죽이느냐고 하니까.

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농성을 주구장창 할 계획이라던데 사실입니까?

박 그렇지 않아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단순하게 복지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철학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을 바꾸려는, 패러다임 문제죠. 우리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드시 예산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제돼야 해결 가능한 문제 인데요.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국가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장애인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 보기보다 자기 통치의 대상일 뿐이예요. 권력이 기본 좋을 때 떡고물 던져주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복지도 자기들이



표를 받기 위한 선전물로 사용한 것이지 진심으로 변화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3년 내내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지금 복지예산 3조원을 줄여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 중복, 누수, 부정수급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판에 대고 무슨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필연적인 복지예산의 확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권력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뭘 해야 할까. 우리 삶의 권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해요. 2년 뒤에 있을 선거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선거 그 날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준비를 해야죠. 이후 어떤 권력이 오든, 이 문제와 관련해 폐지 약속을 받아내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대중적으로 좀 더 강고하게 이 문제를 요구해나가야겠죠. 이런 의지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이 이후 2년이라고 생각해요.

김 총선, 대선 바라보고 하시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땀 장 애등급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박 그렇죠.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 공약했죠. 이와 관련해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아마 2017년도 말에 결과가 나오고 제도화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때 한바탕 부닥치겠죠.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맞냐 가지고 부닥치는 거죠. 지금은 장애등급제 폐지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애등급 6등급제를 없애고 중, 경으로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2017년도 말에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제 정책 발표할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양의무제 폐지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김 완화!

박 완화, 그렇죠. 폐지는 못하고 완화하겠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장애등급제 문제는 정책적 의제들의 다름이 있는 것이고 이후 부닥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부양의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부양의무제 문제를 좀 더 의제화시킬 필요가 있죠. 정책적 요구를 지금은 좀 더 부각시켜야 해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일으키고 투쟁을 해나가면서 총선, 대선까지 제대로 된 투쟁을 해나가야죠.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지시켜야죠. 두 제도 폐지

시키면 농성은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게 바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
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하나까.

김 그게 주구장창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 언젠가 비가 오잖아요. 하늘의 비는 그렇게 오는데, 이놈의 권력과 사회는
이 문제로 기우제를 지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이 사회가 반성하게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좋겠어요. 그 눈물과 함께 축축한 비를 내릴 수 있는... 빈
곤한 삶에 축축한 물기. ^^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삶을 축축이 적셔주는 이 비를 우
리는 만들어갈 거예요.

김 우리가 누굽니까?

박 당신과 나! 동지. 근데 나는 2년 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해
요. 2년 뒤라는 꼭지점보다 선이 중요합니다. 선적인 투쟁...

김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은데요. 『노마디즘』 배웠다고 또 써먹는 것 봐...

박 하하. 누가 뭐뭐... 뭐 배웠다고? 『노마디즘』에 이게 나와요?

김 본인의 것처럼 이제 다 체화되셨나봐요?

박 인터뷰 계속 질문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답변이 훌륭했어요?

김 네? (전화 벨이 울린다) 장콜~?

박 여보세요? 네네네. 예, 몇 대나 남았습니까? 아 예,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예.

김 몇 대 남았대요?

박 17명 남았대.

〈밤 11시 30분 장콜은 오지 않고, 나는 피곤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더 깊어진 밤에 그린라이트 투쟁으로 영화를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금요일 저녁 한 직장맘이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다.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늦을 것 같다. 혜화로터리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메시지 온 게 있나 휴대폰을 확인한다. 고개를 들고 신호를 살피는데, 갑자기 몇 명의 사람이 작은 현수막을 꺼내고 뒤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가 뭐야? 왜 여기 와서 그러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휠체어를 탄 사람도 차 앞에 있다. 장애등급제가 뭘데 그래? 장애인 관련 된 무엇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신호가 세 번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서 있다. 교통경찰이 오고 무전기 든 남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뒤자들이 클랙슨을 울린다. 옆 차선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연다. 화가 잔뜩 나는 속을 한다.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병신 새끼들,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 줄이나 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 순간 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당황스럽다.

그의 끝이 미완인 이유

고병권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밥 먹고 공부해왔으며, 이번 여름부터 무소속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에서 철학교사로 지내왔고 최근에 잠시 휴직한 상태.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자기 충전 중!



1 지난 8월 10일은 야학에서 내가 맡은 사회 과목의 종강일이었다. 학사일정상의 종강이기도 했지만 내 개인 사정으로 잠시 교사직을 내려놓기로 한지라 이 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강이었다. 공식 과목명은 '사회'였지만 내 수업은 야학에서 철학 수업으로 통했다. 그 전에는 불수레반(중등과정) 국어를 맡았는데 다른 반과 달리 불수레반의 국어는 철학이었다. 그리고 보니 대학에서 철학과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고 철학에 관한 어떤 학위도 없지만, 야학에서 지난 몇 년 간 나는 철학 교사 행세를 한 셈이다.

한 학기의 수업, 지난 두 학기 동안 진행했던 작가 루쉰 읽기가 끝나고, 지난 몇 학기 이어온 철학 교사직을 멈춘다는 생각에 이날 수업에서는 쓸 데 없는 힘이 들어갔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말이 좀 꼬이기 시작했다. 오늘이 종강이고, 루쉰이 어땠고, 개인사정이 어땠고 황설수설하고 있는데 수업을 듣

던 상연 씨가 불쑥 물었다. 삶이란 무엇이냐고.

순간, 상연 씨가 철학 수업에 참석한 날이 떠올랐다. 작년 불수레반 수업을 하던 중 청솔반(초등과정) 선생님의 사정이 생겨 합반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날 불수레반 철학 수업에 들어온 청솔반 학생 중 한 사람이었다.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복도에서 내게 물었다. 지금,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때 나는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잡아야면 답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웃으며 철학 수업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했다. 내 수업이 불수레반이 아니라 전체 선택 수업이 된 계기 중 하나는 분명 그날 청솔반과의 합반 수업이었다. 그런데 내 철학 수업이 잠시 끝나는 이 날, 그는 다시 급습하듯 물었다. 삶이란, 생이란 무엇이냐고.

2 이날 내가 준비한 루선의 글은 그가 죽기 한두 달 전쯤 쓴 것이다. 두 편의 글을 읽었는데, 각각 「“이것도 삶이다”…」와 「죽음」이었다. 루선이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예감하면서 쓴 글인데, 두 편 모두 지난 1년간의 루선 읽기를 끝내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골랐다.

첫 글 「“이것도 삶이다”…」에서 루선은 자신이 오랫동안 앓은 뒤 새롭게 보인 일상에 대해 말했다. 정말이지 한동안은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말해 무욕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이런 게 ‘죽음에 이르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썼다. 그런데 잠시 몸이 호전되니 물도 마시고 싶고, 방에 있는 책 더미나 벽에 눈길도 가더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휴식삼아서나 보던 것들, 삶에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득 크게 와 닿았던 모양이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루선은 대단한 전사(戰士)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사라고 해

서 수박을 쪼갤 때마다 ‘조각난 조국’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냥, 맛있게 수박을 먹으면 그만이지, 위장 장애를 불러올 생각을 수박에 덧씌울 필요는 없다. 수박 한 조각 편히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체력으로 적과 싸우겠는가. “전사의 일상은 매사가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것이 실제의 전사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루선의 급진성에는 초조함이 없다. 그는 단호하지만 묵묵하고, 오히려 단호하기에 여유가 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도 삶이다”고 말하는 대목은 뭉클하다.

두 번째 글 「죽음」은 그가 의사에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들은 후 유언장을 쓰는 기분으로 짧게 쓴 것이다. 가족에게 일곱 가지 당부 사항을 적었는데, 이를테면 아내에게는 장례를 치르며 돈 한 푼 받지 말 것, 곧바로 관을 땅에 묻어버릴 것, 나를 잊어버리고 각자 하던 일이나 신경 쓸 것, 어린 아들이 재능이 없으면 소소한 일로 생계를 꾸리게 하고 문학가나 예술가 노릇은 하지 말게 할 것 등이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향해서는 “남이 너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참말로 여기지 말



라”든가, “남의 이빨과 눈을 망가뜨려놓고서 보복에 반대하고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말라”든가 하는 당부를 적었다. 모두 루쉰다운 유언이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적었다. 유럽인들은 임종 시에 모든 은원을 정리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데 나는 어찌할까. “결론은 이렇다. 나를 미워하라고 해라. 나 역시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이 역시, 루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두 편의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학생들에게, 죽음을 예감했을 때 무엇을 하겠냐고 물었다. 영애 누나와 유리 씨는 ‘실컷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준수 씨는 ‘해보고 싶은 일을 맘껏 하겠다’고 했다. 의견들이 모두 비슷했다. 가만히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다. 사는 동안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말에는 ‘못해본 일이 너무 많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들 학생들에게 나는,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죽음에 대해 물었는데 이토록 삶에 대한 갈망이 강해서야 원...”나는 푸념하듯 말했고 모두가 웃었다. 노들의 힘과 의지는 아마도 삶의 이러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노들 학생들은 삶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같다.

3 사실 종강일에 읽은 루쉰의 글은 그의 마지막 글이 아니었다. 「죽음」의 마지막을 쓰면서 루쉰은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고 “정말 죽을 때는 이런 상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말로 그가 마지막에 쓴 글은 ‘타이엔 선생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두어 가지 일’인데 완성되지

못했다. 그는 글을 쓰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틀 후 죽었다.

루쉰의 마지막 글의 주인공 타이엔은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이어지던 시기의 혁명가이자 학자다. 청나라 정부에 쫓기던 그는 일본으로 피신한 적이 있는데, 루쉰은 일본 유학 중에 그의 강의를 들었다. 루쉰의 마지막 글은 타이엔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루쉰이 사람이나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타이엔 선생은 우즈후이라는 인물을 심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우즈후이는 타이엔 선생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반청운동을 벌이던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연설했고(시위 도중 상처를 입었음을 과시하듯), 나중에 중국 본국에 강제 압송되었을 때는 도중에 물에 뛰어들기도 했다. 루쉰에 따르면 타이엔 선생은 그때 우즈후이가 뛰어든 물은 그리 깊지도 않았고 곧 호송경찰들이 건져낼 게 뻔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타이엔 선생은 그렇게 과시적이고 소란스러운 스타일의 혁명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듯하다(우즈후이는 나중에 국민당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서 사살한 ‘청당운동’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이 글에서 루쉰은 타이엔 선생과 더불어 또 한 사람, 나중에 쑨원과 함께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혁명군을 이끌었던 황커창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중에 대단한 혁명가가 된 이 사람은 일본에 있을 때, 반청운동을 벌이면서도 변발을 자르지 않았다고 한다(루쉰에 따르면, 오히려 변발을 자르며 반청운동을 벌이던 유학생들 상당수는 귀국해서는 다시 변발을 기르고 청나라의 충신이 되었다고 한다). 황커창은 소리 높여 혁명을 외치지도 않았고, 무슨 대단한 저항적 기질을 내보이지도 않았

다. 루선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저항적 모습을 보인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 학감이 학생들에게 옷통을 벗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세숫대야를 낀 채 옷통을 벗고 목욕탕에서 자습실로 걸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옷통을 자아내는 풍경, 말하자면 황커창이 옷통을 벗고 자습실로 슬렁슬렁 걸어가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루선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가 이 뒤에 무슨 문장들을 쓰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변발을 자르지도 않았고 혁명을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지만 혁명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황커창을 떠올려보면, 루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루선은 그 전에도 청원이나 절규, 혈서가 아니라 '독하고 매운 침묵'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어떻든 루선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 문장은 화룡점정, 즉 그림 속 용을 살려낸 대단한 마무리가 아니었다. 옷통을 벗은 채 자습실로 슬렁슬렁 걸어간 한 남자. 루선은 거기까지 쓰고 생을 마쳤을 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세숫대야를 끼고 있는 옷통 벗은 그 남자의 모습이야말로 전사와 혁명가의 진면목이 아니던가. 게다가 이 문장이 '완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종강의 시간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말하고자 했던 나를 부끄럽게 했다. 왜 그의 마지막 글은 미완인가. 왜 위대한 사상가의 작품들은 미완인가.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쓰기 때문일 것이다. 끝내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을 잘 담은 글이기도 하다. 어디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행인. 그 작품 속에서 행인은 어느 노인에게 길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노인은 그 앞쪽에는 무덤이 있을 뿐이라고 답한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덤'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떨단 말인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걷고 있으며 이토록 걷고 싶은데 말이다(지금도 어딘가를 걷고 있는 군도 부자처럼, 또 죽음 따위를 떠올리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노들의 학생들처럼).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철학자들은 생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생을 대하는 그들 자신의 태도를 보여줄 뿐이라고. 생이 무엇이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철학자들 역시 죽지 않았을 때 그 말을 했다(죽은 뒤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말하자면 그들은 생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생의 가운데'있을 뿐이다. 생이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관통하는 방식으로만 끝에 이를 것이다.

'생은 무엇이나'고 물었던 상연 씨에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이죠." 그가 웃으며 답했다. 언젠가 그에게 철학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야 할 것 같다.

4 영애 누나는 지난 루선 읽기를 회고하며 「행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이 작품은 '끝'에 대한 루선의 시각

노란들판의 꿈, 이루어지다?

네 번째 공장 이전을 하며...

박시백

노란들판 10년차 디자이너 / 맥주 500cc 5잔 이상부터 내
면으로부터 끌어오는 에너지로 필이 충만한 춤을 추는 이 /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끔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은 여
유롭고 싶은 이

노란들판이 새 공간을 얻었다.

어쩌다 보니 노들야학을 알게 되었고 저쩌다 보니 노란들판에 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월세를 미리 알았더라면 구경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이 공간에 어쩌다 들어오게 되었고 두 번에 걸친 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까지 이어졌다. 처음으로 인테리어공사라는 것을 진행한 덕분에 내년이면 10년차인 노란들판에 이제야 '우리의 공간이구나' 싶은 그런 공간이 생겼다.

최초의 시작은 광진구 군자동에서였다.

2006년 초,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노들야학 상근 활동가였던 '이알찬'이 '돈'을 버는 현수막공장, 노란들판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일도 적고 인원도 적었던지라 점심식사를 교대로 요리해서 먹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친구들을 불러 밤새 건전하게 놀고 나서 아침에 의욕적으로 퓨전요리를 해주었다. 그들의 표정에 다시는 도마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로 처음 해보는 요리에 모두들 맛있다고 해줄 만큼 군자동 노란들판의 분위기는 가족적이었다. 이 때 개인적으로 하루에 택배 10개 이상(5개를 넘기기 힘들었음)과 평균도 아닌 단 한 번이라도 월 매출 5천만원 이상 달성(월 평균 매출 2천만원을 못 넘겼던 때)의 꿈을 꾸었다.

두 번째 사무실은 구의동에 얻었다.

아차산 등산로가 바로 옆에 있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창립 멤버 둘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곳이기도 했다. 잔소리는 전문이지만 운영에는 자신 없었던 나 또한 고민이 많았으나 '안민희'를 비롯한 소중한 사



람들이 빈자리를 채워주어 함께 노란들판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고 출력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루에 택배 10개 이상을 보내면 전 직원에게 '빍스'를 쏠겠다고 객기를 부린 지 몇 개월도 안 되어 빍스에 가야했다. 누구는 여자 친구를 데려왔다. 구의동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시민·사회·장애인단체의 노란들판에 대한 팬덤은 굳건해졌다. 다만 광진구의 시장 환경은 군자동에서와 다를 게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5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를 앞두고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원 감축 없이 살아남으려면 매출을 늘려야만 했고 돌파구를 찾아야했다.

2012년 4월,

광진구를 뒤로 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북구(장위동)로 과감하게 이전했다.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고 재개발 예정지에 속한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동안의 공간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다. 소원이었던 회의실도 생겼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연 매출 5억원을 돌파했고 실사출력 외에 인쇄출판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하루에 택배 10개 이상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또 다시 객기를 부렸다. 5일 연속으로 10개 이상 보내면 빍스를 쏠겠다고 했다. 보름도 안 걸렸다. 그날 굳이 택배로 안 보내도 될 것을 보내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받아들였다. 한 번이 아니라 월 평균 매출로 5천만원을 넘기게 되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인원도 점점 늘었다. 최근에는 장애인계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노란들판의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있다. 재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알아봐야 했다. 장위동 건물은 이번에 이주한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비용과 그 외 이주비용까지 이주보상비로 챙겨준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2015년 8월,

노란들판은 네 번째 공간인 성북구 석관동 사무실로 이전했다. 돌곶이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는 점이 참 좋다. 아직은 분위기가 낯설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큰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사무실 꾸미기는 진행 중이다. 이사와 맞물려 투표로 세 명을 복지위원으로 선출하고 예산 500만원을 배정하여 쓰레기통에서 부터 시작하여 안마기까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별하여 구입하고 있다. 오후에 택배가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이 왔을지를 기대하며 포장박스를 뜯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일 년 내내 복지위원회를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공간에서 이제 무엇을 꿈꿔야 할까.

빚스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빚스를 간다는 것은 내게 노란들판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였다. 단순히 외형적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노란들판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또 다른 노란들판만의 가치를 지켜왔다.

의외로 노들 내에서 노란들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함을 느낀다.

노들바람 소식지 첫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노란들판의 뜻풀이처럼 나는 '대안적 세계'를 멀리 있는 꿈으로 생각하며 일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난 9년 동안 노란들판은 단순히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곳, 즉 노란들판 자체가 대안적 일터였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더 땀을 흘려야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만 넘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공간에서 맞는 또 다른 10년의 키워드는 결국 '사람', 결국 '우리'가 될 것이다. 함께 천천히 걸어왔다. 요즘 나는 노란들판 홍보 브로슈어에 있는 문구인 '모두를 위한 들판, 노란들판'을 생각한다. 그 문구의 '모두'는 지금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 온 노란들판의 한 명 한 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 길에 함께할 이를 뜻하는 것이리라.

노들아 안녕?

노들과 새롭게 함께하게 된 분들을 소개합니다

송무림 | 송정규 | 박누리 | 김진수 | 이상우 |
최영은 | 이수현 | 이승현 | 정우영
질문하는 이 - 노들장애인인권센터 정민구 선생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송 무 림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맥주 캔 하나 들고 한강을 거닐기, 홀로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듣기, 여행 떠나기 등 고독을 즐기는 활동가 송무림입니다.

Q 무인도에 나 혼자 가게 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세 가지와 그 이유는?

- 칼 또는 도끼_ 나무를 베어서 땀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잡은 물고기나 과일 등을 잘라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일 것 같네요.
- 돋보기_ 햇빛을 모아서 불을 피울 수 있고, 그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힐 수도 있어요. 단, 햇빛이 잘 들지 않을 경우엔,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피워야할 것 같네요.
- 옷_ 체온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자연의 것을 이용하여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기능성 옷으로.

Q 학창시절 나의 별명은?

- 삼촌_ 지금은 나이대의 외모를 회복했지만, 그 때 당시엔 노안에다가 머리도 짧고 수영도 있어서 단짝친구가 삼촌으로 불렸죠.
- 송사리_ 초등학교 때 흔히 부르던, 이름 앞의 성씨에 붙이던 별명이었죠.

Q 내가 소중한 이유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 가족_ 나를 위해 온전히 사랑을 베풀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 친구_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그 친구에게

지지와 응원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 나_ '나'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Q 나에게 노들센터란?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어렵게 노들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몇 개월 동안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들어오게 된 터라 나름의 애정(?)과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들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찾았고, 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던,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노들센터는..... 나 자신, 주변 사람들, 사회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준 곳이라 생각해요.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송정규

저는 노들센터 활동보조 코디 송정규입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성격이 좋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 하는 저를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평생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Q 무인도에 나 혼자 가게 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세 가지와 그 이유는?

- 스마트폰_ 엄마 걱정 할까봐.
- 담배_ 지금은 비흡연자이지만 무인도에서 센치하게 피우고 싶을 듯.
- 통통배_ 무인도 생활 즐기다 지겨우면 나가야지.

Q 학창시절 나의 별명은?

하정우

Q 내가 소중한 이유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소중한 가족이 있고, 소중한 친구가 있고, 소중한 동료가 있다.

Q '나'에게 '노들센터'란?

노들센터는 내가
원 - 하는 만큼
두 - 발로 뛰는 곳
커 - 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
피 - 땀 흘려 뛰는 곳



노들장애인야학 ● 박누리



Q 무인도에 나 혼자 가게 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세 가지와 그 이유는?

1. 물 2.ライター 3. 맥가이버칼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물은 꼭 있어야 하고 물과 또 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을 자연 재료로 피우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라이터가 있어야 할 거 같다. 마지막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할 때는 칼이 있어야 할 거 같다. 그런데 그냥 칼보다는 맥가이버 칼이 여러모로 유용할 거 같다.

Q 내가 소중한 이유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세 가지나 필요할까 싶다. 하나로도 충분할 거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나 자신조차 나를 소중하다고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들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교장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여러 단체에 연대하고 생활하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야학에서 주로 했던 활동들은 차별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자본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과 연대하여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소외받고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여 내가 소중한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거 같다.

Q '나'에게 '노들야학'이란?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다. 야학에 온 이후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야학 일정에 맞춰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못 견디게 싫거나 너무 너무 짜증나거나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실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일어나는 게 너무나 싫었고 내가 일어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이 많았다. 출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퇴근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확실히 덜 생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지? 하며 핸드폰 일정을 보게 되고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한번 생각하며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노들야학이란 어느 순간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언제 친해졌는지 모르게 일상을 공유하는 언제부터인가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친한 친구 같다.

Q '야학'에 상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또는 이유는?

야학에 들어오면 입구 현수막에 이런 말이 적혀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작년 10월부터 교장선생님의 활동보조로 야학에서 생활하고 야학에 느물느물 스며들면서 야학의 기조로 삼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의 말을 오며 가며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말이구나 하며 넘겼다. 그러나 야학의 투쟁에 함께하고 신임교사 세미나를 하고 일상을 함께하며 야학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어느새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차 교장선생님이 상근 제안을 하였고 제안을 받아들여 야학의 상근자로 일하게 되었다.



노들장애인야학 ● 김진수

4년 만에 야학에 상근자로 돌아온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노들!

Q 나에게 통통 슈퍼란?

조금은 지루한 슈퍼생활에 즐거움을 준 통통슈퍼 영업상무 우리 강아지 통통이.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알게 해준 교회, 원희. 짝사랑 하는 유치원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치고 싶어 슈퍼에 왔다가 짝사랑은 실패하고 나랑 친해진 체육학원 최00 선생님. 막걸리 이름이 우리 딸 이름 이랑 같다면 순희 막걸리만 사가시던 양래 아저씨, 매주 먼 길을 마다하고

길 고양이들 밥을 주러 슈퍼에 오셨던 고양이 아줌마. 동네 꼬맹이 경민이와 그 친구들, 그리고 통통이 남자친구 점백이까지.

슈퍼를 하면서 맺은 인연들을 적어봤어요. 누군가 통통슈퍼에 대해 물어본다면 전 이 인연들에 대해 말할 거예요.

Q 슈퍼를 하고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들었던 생각은?

그냥 걷고 싶었어요. 생각 없이 무작정. 근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렇게 걸을 거면 굳이 제주도까지 가야 했을까 싶네요. 어디서든 걸으면 될 텐데. 그래도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Q 야학에 상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이유는?

슈퍼를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만하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장샘을 비롯한 노들 상근자 분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무엇을 할까? 라는 저의 고민과 야학에 사람이 필요한 노들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서로의 리듬이 맞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리듬, 타이밍이 중요한 거 같아요. 연애하는 것처럼요.

Q 나에게 노들 야학이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전에 책에서 본 문장이 생각났어요. '마주치지 않고는 시를 읽을 수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시를 읽다보면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시가 있고 마음에 남아 곱씹어 보는 시가 있잖아요. 전 그 마주침이 내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지 않고는 시를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저에게 노들은 마주침의 공간이에요. 여러 마주침들이 노들엔 있어요. 그렇다면 전 읽을 수밖에 없죠. 노들을. 그 마주침들을. 쓰다 보니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의 마주침을 그리고 그 마주침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노들장애인야학 ● 이상우

Q 언제, 어떻게, 왜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나?

집 형편이 어려워서 시설에 들어가게 됐죠. 그것도 어린 나이에요. 그것 아세요? 오랜 세월을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보세요.

Q 언제, 어떻게, 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오게 되었나?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다가 이음여행을 갔어요. 그때 같이 시설에 있었던 병기 형이 저랑 영은 씨한테 아직도 나올 마음이 있다고 물어봤어요. 나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영은 씨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Q 자립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점은?

처음 나왔을 때 활동보조 시간이 많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Q 자립생활을 하며 가장 즐거운 순간은?

매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거요.

Q 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

제 이상형은 영은 씨예요...





노들장애인아학 • 최영은

Q 언제, 어떻게, 왜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나?

저는 5살 때 친아버지께서 꽃동네 성모상 앞에 포대기에 싼 채로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저는 천사의집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9살부터 학교에 다녔어요. 초등 1,2학년까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택학교를 다니다가 오웅진 신부님께서 꽃동네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꽃동네학교에서 초3부터 고3까지 다녔죠! 기숙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저는 성인시설에 입소했죠!

Q 언제, 어떻게, 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오게 되었나?

2011년부터 성인시설에서 살다가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Q 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

제 이상형은 이상우 씨입니다. ^^





사단법인 노들 ● 이수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인생 4학년의 이수현입니다. 고2 학생인 딸과 함께 매일을 싸우며 그러나 그것이 싫지 않고 살아가는 재미라 여기는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여자랍니다. 노들에 입사한 첫 달에는 일이 너무 많아 울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행운을 얻었다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다.^^

Q 무인도에 나 혼자 가게 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세 가지와 그 이유는?

- **핸드폰**_ 음악도 듣고 세상 소식도 듣고,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카카오톡에 올려야지.
- **바둑판**_ 요즘 알게 된 신세계? 7살 조카한테 배우고 있는데 시간 보내기엔 제격이다.
- **칼**_ 나무 베서 불도 지펴야 하고, 요리할 때 써야 하고, 위험한 동물도 무찔러야 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니까~

Q 학창시절 나의 별명은?

- **오리**_ 잘 웃는 편인데, 웃을 때 광대가 많이 승천하여~ 그 모습이 꼭 오리를 닮았다고 한다. ㅠㅠ

Q 내가 소중한 이유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 **그냥 나니까~~**_ 대한민국에, 지구상에, 우주에 '나'는 유일하게 한 명뿐이니까!!
- **내 꺼니까~~**_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사체이다.^^

- **마음이 예쁘니까** 나름 좀 착하다(?). 친정어머니에게 착한 딸, 나의 딸에게 꼭 필요한 엄마로 있어 주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의 나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사단법인 노들 • 이승현

2002년에 '민중복지연대'라는 단체의 상근자로서 최옥란 열사 투쟁, 이동권 투쟁, 예바다 투쟁을 함께하면서 장판과 인연을 맺었다. 그해 말 민주화 과정에 있던 예바다복지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평택에 내려가 오랫동안 일했다. 2015년 5월부터 (사)노들의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노들!

먼저 미안합니다. 원고가 많이 늦었어요. 구차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이래저래 쌓여있는 일 더미 속에 파묻혀 텅굴다보니 이미 마감이 지나버렸더군요. 물론 집에 가서 원고를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귀가를 하면 금방 뺏어버리는 터라 그리되고 말았네요.

고맙습니다, 노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작년 가을에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12년을 내 한 몸 안 돌보고 일한 현장에서, 형제보다 굳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도 없었다면 스스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년 10월이었나 봅니다. 동송동의 한 술집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날의 자리가 계기가 되어 이렇게 노들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복지관 관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노들에 왔는지 의

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기득권을 스스로 다 내려놓고 활동가의 삶을 택한 엄청 훌륭한 활동가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사실 저는 갈 곳을 잃은 상태였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복지관장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복지 현장에서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달가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운동판에서도 워낙 쟁쟁하신 분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터라 당장 활동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저를 이순재 할아버지 말마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준, 그리고 십 수 년 전 함께 투쟁했던 그 기억만으로 신뢰를 보여준 노들과 노들의 활동가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경기도의 가장 남쪽에서 서울 북부까지 출퇴근을 반복하며 이런 저런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다보면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신뢰하고 받아준 노들이, 장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해준 노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열심히 할게요~!



정우영

(사)노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탈시설모델 개발사업'을 맡고 있고 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 만에 정겨운 얼굴들을 마주한다. 반갑다. 그리고 장판이 참 많이 변한 걸 실감하는 중이다.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

자리가 필요했던 나는 지난 5월 어느 날인가 가까운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활동보조인을 해도 되겠냐고 의견을 구했다. 백수생활을 지켜보는 게 조금은 짜증이 났는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해보라고, 괜찮다고.

6월 초부터 일주일간 (사)노들에서 진행하는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같이 받던 후배는 나에게 활동보조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무슨 교육이냐고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어쨌거나 다수의 강의가 장애인운동 및 인권과 관련된 것이고,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에서 나오는 증언과 주장들이라 지루하진 않았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관계가 자칫 갑을관계로 변질될 여지도 있는 현실에서, 활동보조인의 권리로서 노조활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은 인상적이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이었다. 아마도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활동보조에 필요한 테크닉만을 전달하는 강의였다면 전체 40시간 중 반 이상을 제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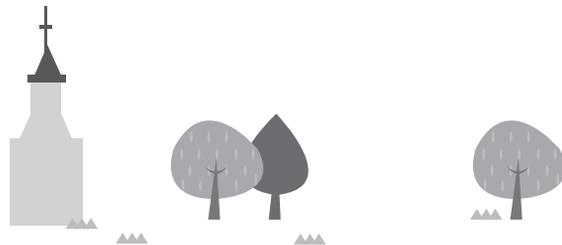
교육을 받으며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장애인운동이 다른 운동과는 연대의 고리가 끊긴 소수 이익집단의 고립된 활동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장애인단체들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방향이 아닌, 여전히 이익집단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운동은 21세기 들어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80년대 중반에 맹아가 싹튼 초기의 장애인운동은 노동 가능한 경증장애인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증장애인들이 운동의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내부동력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운동이 발전해 왔다는 판단이다. 분명 20세기 후반보다 21세기 장애인운동의 위상이 확고하다.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시행으로 노동 가능한 장애인들이 체제내로 편입되는 것과 함께 운동의 동력이 축소되는 흐름이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혁적 운동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운동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던 것이다.

대략 90년대 초반 『장애인복지신문』 지면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계층 가운데서도 최하층인 장애인을 계급론적 관점에서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그런데 한번은 근육장애를 지닌 한 중증장애인이 이 주장에 대해 항의를 했다. 그 반론의 요지가 잘 기억나진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주체적 존재가 아닌, 부모나 형제 등 타인의 경제력에 얽혀 단순히 소비만 하는 계층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해했다. 그렇다. 기생적 소비계층으로서의 비주체적인 삶은 거부되어야 할 우리의 냉혹한 과거이자 현실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 역시 이러한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화되고 상품화된 왜곡된 삶의 굴레를 거부하는 투쟁, 인간 본연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향한 투쟁만이 희망일 것이다. 30여년의 장애인운동의 역사가 우리의 희망이었듯이.

지난 6월 중순, 활동보조인이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탈시설모델 개발사업의 담당자로 노들에 합류했다. 박경석 대표가 볼 때마다 어려운 거 없느냐, 힘들지는 않느냐고 묻는다. 누차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게, 혹 업무 능력에 대한 못미더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힘든 거 없다고, 편하다고 대답한다. 당연히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고, 가마솥더위에 체력적 한계로 킁킁거리고 있으며, 가뜩이나 불량한 축은 더더욱 둔해져 있긴 하다. 그러나 정말, 마치 집에 돌아온 것같이 편안한 마음이다.



우리는 2인 1조 둘 사이를 잇는 발판

김유미

노들바람 편집인이다. 앞서 들어간 본인 글에도 자기소개를 넣은 터라 이번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필자 자기소개는 이번호에 처음 넣어본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노들바람 독자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 바로 뒤에 사람이 또 있다. 바짝 붙어 있다. 둘이 달려오는 속도가 같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다. 으흠. 나는 이것에 2인1조 뒷바퀴라는 별명을 달아주고 싶어졌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휠체어 꿈무늬에 이 발판을 달아주는 일을 했

다. 이것은 활동보조인을 위한 장치로, 활동보조인을 위한 것이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리 아프면 활동보조하기도 힘드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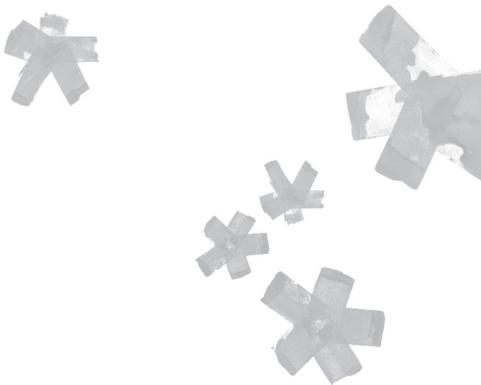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뒤에 누가 바짝 붙어서서 귀신처럼 다가온다. 오 마이 귀신님인가.

❶ 이 발판이 있으면 전동휠체어 속도 5 중에 5인 이용자와 함께 움직일 때 속도를 맞출 수 있다.





② 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③ 장거리 행진 시에 활동보조인의 다리가 덜 아플 수 있다. ④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용자가 느끼는 길바닥의 질감을 비슷한 수준으로 느낄 수 있다. ⑤ 타고 갈 때 재미있기도 하다.



저는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해요

박정숙

노들야학 학생이고 (사)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종이공예를 하고, 가끔 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 맛있는 밥 먹는 것도 좋아한다. 구름 몽실거리는 하늘을 좋아하고, 아직은 소녀이고 싶고, '정숙'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작년 8월 노들야학 선생님의 권유로 반상근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상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업무라고해서 예전에 했던

일과 비슷하겠지 생각하고 겁 없이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기를 권유하고 같이 일했던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하나씩 알아가고 채워가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저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치는 시간에 가서 다시 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고 들었다는 분들, 반말을 일삼으시는 분들, '장애자'라고 한다면 '환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환자가 아닙니다."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쾌해져서 딱딱하게 응대를 하게 되고 불친절하다는 말도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며 느낀 점은 첫째,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비장애인들의 마음과 시선은 멀리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둘



째, 활동보조인 교육은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장애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주어서 마음과 시선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생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후반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엔 장애인 자녀를 둔 분들과 장애인당사자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 현직 요양보호사들,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일자리나 있겠느냐, 화장실이 불편하다, 그밖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듣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변화가는 교육생들을 보면서, 매 회기 교육마다 힘든 일도 조금씩 있지만 보람을 선물로 받으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들이 왜 저렇게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비타500 한 박스를 주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교육생은 너무나 좋은 교육이라서 대학생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고, 설명 활동보조 일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함께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교육을 신청하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파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빵, 과자, 떡, 직접 재배하신 상

추 등을 감사하다며 주시는데, 그 선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변화된 시선과 더 가까워진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하니 저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어떻게 도입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기 와서 처음 듣고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언어사용에 대해서, 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왜 지금도 끊임없이 거리에서 권리를 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고민하고 돌아보며 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노들장애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권교육이 정말 모든 학교에서 정규 과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그린라이트 투쟁에 나선 장애인들을 향해 욕을 하기 보다는 묵묵히 기다려 주는 마음과 시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받으면서 속상한 말을 들어도 이제는 딱딱하게 대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이 시작되며칠이 지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조금씩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때마다 열정적인 강의로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을 주시는 30여명의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뽀글뽀글 활보 상담소]

초보 활보코디의 생각's

송정규

나는 하정우를 닮은 송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자주 욕을 한다. 그런 내 얼굴이 궁금하면 노들아 안녕에 있는 내 사진을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자기소개를 두 번 하려니 할 말이 없다.

어느덧 노들과의 인연은 5개월 정도 흘렀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일단 노들은 평등하면서 수평적인 조직인 것 같다(개인적인 생각). 난 내 첫 직장이 노들이란 것이 감사하다. 사실 노들과 장애인운동에 큰 의미와 신념을 두고 입사한 것은 아니다. 단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겠다는 신념이 나에게 더 컸다. 그렇다고 입사한 후 열흘도 안 돼서 내 호주머니를 털다가 소장님 신분증을 낚은 마로니에 공원에 투척해서 잃어버릴 마음은 없었다(소장님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와 사고들은 입사 후 5개월째 심심하지 않게 진행 중이다. 그래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노들센터 3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업무에 대한 것들이 넓게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고민되는 문제도 많아졌고, 이해해야 될 범위도 넓어졌다.

활동보조 사업은 이용자 비밀보장, 상호존중의 문제 등 다양한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서 이런 저런 여러 일로 찾아오는 이용자 혹은 활동보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알 수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딜레마들의 상충된 내용 속에 정확한 정답을 내포하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얘기만 듣고 이게 답이네! 하며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라고 확신하면 그 답은 어느새 저 먼 곳으로 가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논제거리가 나타난다. 답을 풀면 풀수록 문제는 심오해져 가는 경우도 있고 마치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거 마냥 문제가 점점 진화해 가지만 그 외중에 핵심은 하나인 것 같다. 그 핵심을 찾아서 풀어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핵심 찾기까지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야 하며 공식도 다양하다. 만일 하나 문제

를 풀었는데 그 답이 아닐 경우 그 핵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뻗쳐 나오고 또 다른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상대방과 얘기를 나눠보면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주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양측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적절한 답을 내리기란 나로서는 너무 어려웠다(물론 지금도 어렵고 계속 어려울 것 같다).

5개월 동안 노들센터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보고 접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마음을 교감하면서 눈물도 흘릴 날이 있을 것이다. 살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함께 삶을 꾸며 나간다는 것, 겉보기에는 감동과 따뜻함이 보일 수도 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는 날이 있을 것이고 서로 너무 편해져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에서 정말 친한 친구 혹은 의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서로가 맞지 않아 감정 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 모두가 알 법한 얘기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드릴지 궁금해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아름답다, 또한 사랑스럽다.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모르고 지나칠 뻔 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활동보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용자, 활동보조인, 코디들 모두 존중하고 존경한다.

메르스로 사망한 활동보조인, 그림자노동의 슬픔

사망한 활동보조인, ‘전파자’ 아닌 ‘산재 노동자’로 불러야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p>정의</p>  <p>메르스는 활동보조인들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 조치나 예방노력이 필요합니다.</p>	<p>증상</p>  <p>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 메르스병,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전염</p>  <p>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전파</p>  <p>발열이 없는 경우라도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이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됩니다.</p>	<p>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p>		<p>예방</p>  <p>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발열 감열 온도계는 보,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p>
<p>자가 격리</p>  <p>환자가 발생한 단체를 한 경우, 증상이 발현되면 메르스에 감염되고 가족도 중증장애인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 내원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p>	<p>진료</p>  <p>환자가 발열 증상을 확인한 시, 활동보조인 발열만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메르스에 내원합니다.</p>		
<p>단단</p>  <p>메르스는 기체, 액체, 분말이 포함된 입자(에어로졸)를 통해 전파됩니다.</p>	<p>치료</p>  <p>환자는 증상이 되면 치료를 받게 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p>	<p>장비</p>  <p>의료진만 손대지, 손대지 않게 개인, N95 마스크, 보호복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p>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지난 7월 6일 국가재난 메르스 정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질 의서를 보내 활동지원인력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활보노조는,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인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전 하였다. “감염의심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해당 장애인인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고립되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음을 복지부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끝나지

않는 메르스 정국과 이후에 감염성 질환이 다시 퍼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서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질의서에서 활보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나, 장애인과 동행 했음을 파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생계가 끊기는 활동보조인들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연계가 끊겼을 경우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이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여 활동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움을 전하기도 하였다.

3종의 갈등 : 감염의 두려움, 생계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이용자'

전염성 질환과 같은 재난에 대해 국가가 책임 지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어느 처지에 있건 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해야 하는 의사들이 가장 불안에 떨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구급차 대원들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대

형마트의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도 착용할 수 없어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있다.

활동보조인들이 겪는 첫 번째 갈등은 감염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6월 24일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활동보조인도 이용자와 병원에 동행하였다가 감염이 된 것이다. 그러나 확정되지도 않은 위험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기에는 '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크다. 내가 없으면 식사도 화장실도 가지 못할 이용자에 대한 염려는 감염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든다. 또 다른 갈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서비스 받기를 거부할 경우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은 메르스의 진원지이다. 메르스가 백신도 없고 감염 경로도 너무 광범위해서 통제하기도 힘들어지자 평택의 장애아동 부모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였다. 활동보조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며 이 정국이 하루빨리 지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대인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들은 이 난국을 함께 건너야 하는 동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런데 이와 관련해 『에이블뉴스』에 올라온 칼럼 (서인환, 「장애인들 비상, 메르스 불안감 확산」, 2015.06.26)은 몹시 우려스러운 느낌을 주는 글이었다.

서비스 제공하다 감염되어 사망한 활동보조인, 희생자인가 전파자인가?

이 칼럼은 장애인이 감염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사회적 관계망들 (시각장애인이동지원차량 → 이 차량을 이용한 투석환자 → 감염병동이 된 투석병원 → 이 차량을 투석환자가 이용했음을 알게 된 시각장애인들의 이용기피로 인한 장콜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등)을 잘 쫓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렇게 생생한 전달의 과정에 치우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감염으로 사망한 활동보조인을 희생자라는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감염시켰을 지도 모를 '전파자'라는 관점에 너무 치중한 것이다.

같이 병원을 간 장애인은 즉시 파악되었으나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잡히지 않아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활동보조인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슬픈 사례이다. 평소에도 활동보조인은 그 '보조인'이라는 직업명과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림자'대우 때문에 슬픈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그림자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 활동보조인은 자신이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위험을 통보받지도 못한 채 그냥 감기이겠거니 하고 병원을 다니고 약국을

다녔을 것이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를 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칼럼에서는 이 활동보조인의 동선을 지나치게 열심히 쫓다 보니 마치 의도적으로 2135명을 접촉한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다. 죽은 자는 항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에 대해서는 그 표현 하나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 활동보조인은 메르스 전파자가 아니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이다. 다행히 이 분이 소속되었던 활동지원기관에서 산재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감염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고인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나마 돌아가신 분의 명예는 회복시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럽에서 1300년대 페스트가 발병하였다. 페스트는 공기나 접촉을 통한 전염이라는 점에서 메르스와 비슷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의료발달의 차이는 있지만) 1300년대 유럽은 이 페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1이 희생될 정도로 심각했고 유럽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대단하였다고 한다. 당시 흑사병이 생기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결인,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닌다고 하여 집단폭력을 당하거나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향해 공격이 화살이 돌려지는 이유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질병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정확히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서로를 믿고 이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품위 있고 슬기롭게 행동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남은 것은 우왕좌왕하는 군중들이다.

우리는 메르스 전파에 대하여, '왜 그는 자신이 중동의 낙타농장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000번 환자는 자신도 폐렴으로 악화될 동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정부는 그가 낙타농장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왜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자가격리 하라는 어이없는 조치를 내릴까'라고 비판하여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메르스의 위험과 또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이런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기다린다.

- 이 글은 지난 7월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일상적인 모니터링 체계, 비상시엔 안전 체계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건복지부는 이 비상시국에 책임의 최전선에 서 있다. 메르스의 종료를 선언하려면 지금의 감염과 진행 정도로도 8월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우리는 불안에 떨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대책없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일일이 뒤진다. 모니터링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위험에 노출된 시기에는 그 시스템을 부정수급의 단속이 아니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알바는 돈이 필요한 노동자다

조은별

노들장애인아학 교사. 송실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좋아하는 건 도로점거.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한다. 많은 종류의 알바를 해봤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니 쌤쌤.

지난 6월 24일 알바노조와 노들야학이 맥도날드 대학로점에 갔다. 그동안 꺾기(매장이 한가할 때 강제 조기퇴근 시키는 것) 등의 꼼수, 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등 나쁜 짓을 가득가득 해온 맥도날드에게 알바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문'하려는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는 그냥 영업장을 폐쇄해버렸다. 2시에 간단한 기자회견 후 들어가 주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1시 반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나를 내쫓았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문을 걸어 잠갔다. 예전에 내 친구들도 맥도날드에서 많이 일했다. 내가 살던 의정부는 맥도날드 매장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여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원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도 주 단위로 시간표를 짜고, 꺾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알바를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기 때문에 쉽게 알바를 할 수도 없었는데, 어디서 일용직 알바를 덤덤 물어 와서 나갔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다가도 전화가 와서 몇 시까지 나올 수 있냐고 물어오면 밥순가락을 던지고 뛰쳐나갔다. 호텔 웨딩 알바, 옷가게 알바, 레스토랑 알바, 고깃집 알바 등 안 해본 알바를 꼽는 게 더 어려웠다.

하나같이 최저시급도 주지 않았다. 가령 고깃집은 평일오전 기준 4500원이었다(2012년 당시 최저시급은 4850원).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실제로 평일 오전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돈을 받는 게 미안할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일이 없을 때에는 일찍 퇴근도 했었다. 물론 임금은 주지 않았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죽어라하고 일했던 호텔웨딩 알바는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았다. 하나하나 다 세려고 하니 참 슬픈 기억이다.

알바를 하느라 쉴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안 나가고 쉬기도 했다. 평일 저녁은 레스토랑, 주말 저녁은 고깃집에서 일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70~80만 원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가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다. 다들 주 3~4회 아르바이트에 남는 시간에 동아리 활동 조금, 학생회 조금 하고 있었다. 내가 만난 친구들 대부분 쉬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편의점에서 일해도 잘리지 않을까 받을 동동 구르던 친구, 하다하다 더러워서 때려치웠다는 애슐리 알바생 친구. 알바에게는 권리가 없었다.

어떤 높은신 분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는 걸 그저 취미생활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도 참고 일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다. 돈이 없었다. 어느 누가 스펙 쌓으려고 주 7일 일하다가 학교를 못갈까? 대학생까지 되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 주변의 친구들은 한 명도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했던 것이다.

요즘 '최저임금 1만원으로'가 대세다. 알바노조가 생길 때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3년이 좀 넘었나? 지금은 최저임금을 논할 때에 빠지지 않는 구호가 되어버린 것 같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권리가 뭔지 알 겨를도 없이, 그저 눈앞에 떨어진 일감들을 즐기 바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꼭 잡고 말해주고 싶다. 힘들죠. 우리 최저임금 1만원 받으면서 일해요. 그래야 좀 살맛이 나지 않았어요. 최저임금 1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두 발 조금 더 뺀고 지내며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생활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높은 분들이 생각하는 동화 같은 알바 생활은 없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노동자다. 내년도 최저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갈 길이 멀다.



스물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 - 니나노〉에 초대합니다



“카르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너희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삶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10월 10일 마로니에 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낮에는 다양한 부스행사! 밤에는 신나는 파뤼 투나잇!
스물두 번째 <노란들판의 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들을 사랑하는 님,
님을 그리워하는 노들.

우 리 한 번 만 나 요 .

[장관 핫이슈1]

현금지급제와 개인예산제, 아이고 의미 없다

김도현

노들장애인아학 교사이자 인터넷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발행인. 틈틈이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특별한 고민은 없지만, 요즘은 현장 대중운동과 담론 운동의 병행 (불)가능성을 고민하며 산다.



직접지불제도
도입 이전의 영국
돌봄서비스의
상황

‘다이렉트 페이먼트(direct payments)’, 한국말로 번역하여 ‘직접지불제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 진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직접지불제도는 ‘(돌봄)서비스 현금지급제도(cash for care)’에 대한 영국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글에서는 그냥 ‘직접지불제도=현금지급제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모든 장애인이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현금지급 방식을 원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직접지불제도 도입 이전에 영국의 돌봄서비스는 ‘장애인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형태의 현물서비스였습니다.¹⁾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서 쉽게 서술해보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활동보조인으로 보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낼지 등을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모두 알아서 결정해 파견하는 형태였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를 가장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텍스트인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을 보면, 현물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권옹호자들은 “캐서린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국은 직원이 갈 수 있는 시간이

1

현물서비스라고 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고 이 글에서 주요 관심사는 아니기에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존 글래스비·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김용득·이동석 옮김, 올버, 2013, 32쪽, 44쪽.

3

같은 책, 194쪽

5시에서 7시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직원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그 시간에는 지원이 필요 없다.”, “열흘 동안 돌보미가 5명이나 다녀갔습니다. 매번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²⁾ 등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현물서비스가 제공되다가 자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ILF)의 활용을 경유하여 1996년 「지역사회돌봄(직접지불제도)법(Community Care(Direct Payments) Act)」에 의해 1997년부터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전의 현물서비스와는 확연히 다른 선택권과 통제권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다른 보조인이 오지 않고, 같은 보조인이 계속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³⁾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준(準)현금지급제도+유사시장시스템' - 선택권 증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이득이 새롭게 발생하는가?

영국의 직접지불제도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이를 이끌어낸 추동력은 장애인 쪽에서는 선택권의 증진이었고, 정부 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편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일정한 급여액이 결정되면, 그 급여액을 특정 단말기에서만 정산되는 체크카드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즉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는 현물서비스라기보다는 준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⁴⁾ 또한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에는 시장기제(market mechanism)가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인은 (다행히도 아직 영리기관은 진입할 수 없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다수의 서비스 중계기관들 중 자신이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또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준현금지급제도+유사시장시스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비슷한 선택권을 행사”⁵⁾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물서비스를 이용하던 영국의 장애인들처럼 자신이 필요 없는 시간에 돌보미가 오는데도, 열흘 동안 돌보미가 다섯 번이나 바뀌거나 날마다 다른 보조인이 오는데도 그냥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활동보조인이 하루 중 언제 와서 언제까지 일을 하도록 할지 결정할 수 있고, 현재의 활동보조인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4

바우처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강조는 인용자)이다.

5

이동석·김용득,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2호, 2013, 60쪽.

입장에서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현금지급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특별한 유익함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책을 배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서는 필요도 없고, 흥미도 없고, 수준에도 맞지 않는 책을 그냥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열불 터칩니다.(현물서비스 시스템) 그러다가 이 책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그 돈은 책을 사는 데 써야 합니다.(cash for books, 즉 현금지급 시스템)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도서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돈을 책(돌봄서비스)을 사는 데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과 도서상품권(바우처)은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정부 쪽에서 직접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요인은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즉,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장애학 저널 『장애와 사회(Disability & Society)』 홈페이지에 가서 ‘direct payments’로 검색을 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후에 실린 관련 논문들의 다수가 그 비용효과성, 즉 비용절감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절감 중 대부분은 기존의 현물서비스 시스템에서 다소 비대한 형태로 존재했던 관리 인력(공무원)의 인건비와 행정 비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현금지급제도+유사시장시스템’하에서 그러한 관리 업무가 이미 비영리민간영역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적 상황에서는 현금지급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택권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용의 절감(혹은 더 많은 양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완전한 경쟁적 시장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가 아니라면, 현금지급제도를 시행해야 할 동기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직접지불제도의
선택률은
여전히 15% 수준

그렇다면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와 현재 한국의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애인 스스로 광고를 내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세금을 내는 등 고용주로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활동보조인을 직접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고용주로서 여러 가지 행정·회계 업무를 직접

6

존 글래스비·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279~280쪽.

7

영국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다. 즉 2013-14년이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를 말한다.

8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Community Care Statistics: Social Services Activity, England(2013-14, Final release), HSCIS, 2014, pp. 44~46.

9

잉글랜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이용 인구는 2008-09년에 153만 7천명이었다가 2013-14년에는 105만 2천명으로 5년 사이에 1/3가량이나 감소했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별개의 문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은 생각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중 대략 34~43%가, 즉 3명 중 1명 이상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악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직원[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어딘가에 전화해서 적절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⁶⁾와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직접지불제도의 선택률은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째에 접어든 2013-14년⁷⁾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105만 2천 명 중 14.7%에 해당하는 15만 5천 명만이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⁸⁾ 그러니까 대략 7명 중 6명은 직접지불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직접지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2001년에 규정을 개정했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도 그러했습니다. 그나마 직접지불제도의 이용 비율 증가 중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자체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⁹⁾ 결국 영국에서도 직접지불제도는 결코 다수의 장애인들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제도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국의 경우 현금지급제도에 뒤이어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흔히 이 두 제도는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도는 기술적인 면에서 현금지급제도와 완전히 별개”¹⁰⁾의 문제이며, “서비스현금지급제는 개인예산을 받는 하나의 방법”¹¹⁾에 불과합니다. 즉,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개인별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지향을 담는 틀로서의 ‘자기주도 지원(self-directed support)’, 그리고 이러한 자기주도 지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를 구체화한 제도를 지칭하기도 하는 ‘개인예산제도’는 현금지급제도와 개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구별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개인예산제도는 돌봄서비스를 넘어선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인 K가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걸쳐 여러 사

10

존 글래스비 ·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장애인 중심 사회 서비스 정책과 실천』, 15쪽.

11

이동석 · 김용득,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52쪽.

12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Community Care Statistics: Social Services Activity, England(2013-14, Final release), p. 55.

핵심은 ‘서비스 간 자기주도 조정’ 보다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있다

회서비스에 대한 총량이 금액으로 환산되어 산출되면(즉 어떤 개인에 대해 예산액이 할당되면), 이러한 예산의 용도를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시 이전에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에 대해 ‘자기주도 조정’을 하는 것은 현금이나 바우처는 물론이고, 현물인 경우에도 시스템만 갖춰지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잉글랜드의 경우에도 2013-14년에 자기주도 지원(개인예산제도)을 이용한 인구는 64만 7천 명인데¹²⁾,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한 인구는 1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즉 24% 정도만이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개인에게 할당된 예산을 지방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제3자가 관리하는 관리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가 (성인) 신체장애인 운동 쪽에서 추동력이 나온 반면, 2003년부터 시작된 개인예산제도는 직접지불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운동 진영에서 추동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이 두 제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차원의 문제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 등에서 공식화된 용어를 따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개인별 지원’이라는 용어로 ‘개별적 유연화-자기주도 지원-개인예산제도’의 문제의식을 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예산제도는 검토해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한국적 맥락에서 이야기되었던 개인별 지원에는 개별적 유연화와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과 강조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주도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차용해 이야기하자면 바로 ‘자기주도 사정(self-assessment)’+[동료 사정(peer assessm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이나 여전히 재활적 기준에 얽매어 있는 일상생활활동/도구적 일상생활활동(ADL/IADL)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획일적 사정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사정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故 송국현 씨와 같은 장애인이 실제로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로, 또 인정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故 오지석 씨와 같이 실제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도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즉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법은 이미 개인예산제도의 부분적 적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현금 형태로 쉽게 환산이 가능한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간 조정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조정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받는 사회서비스는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 하나이며, 만 18세 이하의 아동일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중 택1)와 발달재활서비스 2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서비스가 좀 더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강조점은 각각의 서비스를 자기주도적 사정을 통해 적절하고 충분히 이용하는 데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적 조정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서비스의 사정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요구
되는 것: 필요한
서비스의 구축과
예산의 확대

현금지급제도 및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대중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어진 돈을 마치 자신의 생활비나 용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현금지급제도는 애초 돌봄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었고, 개인예산제도의 경우 당연히 훨씬 폭넓은 조정이 가능하고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적용 범위는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인예산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주거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부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빼서 소득보장의 영역에 보태는 식의 임기응변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연성의 확대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 보장은 아닙니다. 약순환이고 궁핍화일 뿐이지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이를 식단으로 비유하자면 현재 장애인의 밥상에는 밥과 김치 정도만, 그것도 매우 부족한 양만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이행 상황에 대한 한국의 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2014년 10월에 제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2013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에 의한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일을 처리하는데 영구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간주된 사람’의 재산과 개인적 사안에 관계된 결정을 후견인이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의사결정 대리’에서 당사자의 자율성과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조력’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러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무얼 선택하고 조정하고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법과 김치와 국에 대한 비용이라도 넉넉하게 있어야, 계란프라이를 하나 더 얹을지, 아니면 참치 캔을 하나 더 얹을지 선택과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굳이 ‘국’을 하나의 어떤 사회서비스에 대응시켜보자면, 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기결정지원인(self-determination supporter)’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신체적 장애인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는)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사회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자기결정지원인은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의사결정 대리(substituted decision-making)’에서 ‘의사결정 조력(supported decision-making)’으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대인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¹³⁾, 당연히 지금의 활동보조인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양성체계를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성격상 소위 ‘단가’가 활동지원제도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개인별 지원(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을 중심에 놓든 개인예산제도(서비스 간 자기주도 조정)를 중심에 놓든, 장애계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예산을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적 현실에서 현금지급제도는 물론이고 개인예산제도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조차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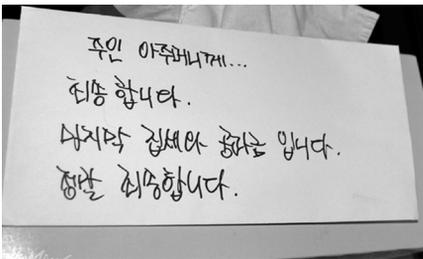
[장관 핫이슈2]

개별 급여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고 어려워

더 복잡해졌지만 함께 찬찬히 봅시다~

정성철

2013년 사회복지학 공부. 2014년 6월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
지실습.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빈곤사회연대 활동과 함
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 집행위원으로
활동.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실업이나 질병, 장애, 노화 등의 위험이라 불리는 상황에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물리적 제약이 함께 찾아온다. 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위험들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개인이 사전에 위험

을 준비하는 기여방식의 사회보험과 사회구조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전자를 1차 사회안전망 후자를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맞춤형 급여’, ‘송파 세 모녀 법’ 말도 많고 이름도 많았던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되었다. 버스에 앉아 창 밖을 내다보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라는 플랜카드가 거리마다 즐비해있다. 마치 누구나 신청하면 내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줄 것만 같다. 정말 그럴까? 이번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만 보면 그렇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방식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7가지 급여¹⁾를 모두 제공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급여를 박탈하는 통합급여 방식이었다면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 선정기

1

통상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는 현물급여로 또는 급여에 해당 될 때 지급된다.

준을 따로 두고 개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눈살이 찌푸려진다. 선정 기준은 급여별로 쪼개졌지만 선정기준의 수준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는 2015년 1인 가구 기준 61만원이다.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50만원 남짓이었는데 현금급여의 약 77%가 생계급여, 나머지가 주거급여로 명목상 지급되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28%인 43만원 수준이다. 이전 61만원 이하의 소득에 생계급여가 최대 39만원 지급되었다면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3만원 이하의 소득에 최대 43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현금급여 중 약 22%,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원이 지급되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43%로 1인 가구 기준 67만원 수준이다. 이 이하의 소득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가구 인원수별, 지역별 지급 급여액이 달라졌다. 이를 기준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기준임대료를 최대 급여액으로 잡고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급된다. 또한 중위소득 28%에서 43% 사이 구간 즉, 주거급여만 해당되는 맞춤형 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었다. 생계급여보다 많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30%] 만큼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주거급여로 지급된다.

표 1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이상	36	33	25	23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이전 최저생계비 이하 1인 가구 기준 61만원 이하라면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40%로 1인 가구 기준 62만원 수준이다.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나머지 해산급여 60만원과 장제급여 75만원은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보장되며,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보장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50%로 교육급여만이 선정기준이 올랐다.

이번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감히 의료급여를 꼽을 수 있다. 빈곤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할 수 없다. 의료체계가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 영역이 아닌 시장 영역에 치우쳤을 때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동반한다. 최근 안산에 어머니의 시체와 함께 몇 일간 방치됐던 지적장애아들을 소방관이 발견했다고 한다. 아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해보여 소방관이 아들에게 병원에 가자고 건넌 말에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아들의 상황은 빈곤층들에게 의료접근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급여라 선전하며 의료급여 수준을 제자리에 둔 것은 취지에 걸맞지 않다.

다음으로 통상 현금급여라 불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개정법에 따라 현금급여를 최대 62만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실질 임대료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50만원 수준보다 적게 보장되는 가구들이 생겼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급여가 수급자가 아닌 SH/LH공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무시한 권리침해이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닌 쪽방과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액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임대료 역시 함께 오르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에 더해 기준임대료를 신설하면서 1급지의 5인 가구, 2급지의 3인 가구, 3·4급지의 2인 가구부터는 기존 명목상의 주거급여보다 급여의 절대 액수가 적어졌다. 기존 급여보다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이행보존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개선된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선전하며 삭감되는 가구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것은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을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 물론 변한 것은 있다.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학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되는 급여이며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애초에 교육부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

나머지 급여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 12만 명의 신규 수급자를 보장하겠다고 선전한다. 12만명, 많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법상 보장받지 못하는 117만명의 1/10수준이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어떤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역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거부되는 이들을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이미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도 복지부에서도 파악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다.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시작하기 위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빈곤사회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함께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6월 일주일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활동가 학교를 진행했다. 학교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많은 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일주일간 함께 기초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는 500쪽을 훌쩍 넘는다.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두꺼워지고 있다. 주무부처가 급여별로

달라지면서 권수도 많아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며 전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 권리의 출발은 그 권리를 갖는 사람이 쉽게 알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출발 지점에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청조차 꺼리는 상황이 발생되며 어려움으로부터 발생된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정보의 불평등은 권리의 주체들에게 관리의 대상이라는 낙인을 지운다.

이러한 잘못 설계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상담활동가 학교를 수료한 활동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빈곤사회연대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및 증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 내야만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읍시다”

2015 후원주점에 성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한혜선

‘짧은 글짓기’를 이렇게 끄꽂대며 오래 쓰는 애는 첨 봤다며 혀를 차시던 중학교 때 국어 쌤이 떠오르는 “자기소개 쓰기”. 어려워 ㅋㅋ. 남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팅굴팅굴’ 놀기가 제일 좋은. 그래서 여전히 제주도를 그리워하는(제주 풍경이 아닌 텃굴거리던 제주도 ‘방’) 야학 15년차. 상근은 새내기. ^^

5월 30일에 노들야학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노들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들어갈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후원주점이 열리기 두 달 전부터 티켓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자기 몫(?)의 티켓을 받으며 여기저기 탄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얘기할 데도 없어” “티켓 팔기 너무 힘들어” “ㅋㅋ” 다들 이렇게도 티켓 판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는 왜 매년 후원주점을 할까요? ‘다들 이러한데 후원주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까!!! 올해에도 어김없이 또 열심히 티켓을 팔며 후원주점을 맞이했습니다.

2015 후원주점은 작년에 이어 “씩씩한 후원주점 2탄”이었습니다. “천원에 밥 먹자!” 상당히 질 좋은 급식을 적자를 감수하고 3천원에 먹었는데 3천원도 부담





스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2천원으로 내리면서 적자 또한 쌓여 갔습니다. 그래도 밥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두둥~~ 후원주점 당일은 노들후원주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과, 여기저기 맡은 일을 해내느라 정신없는 노들 일꾼들로 북적북적~ 야하 앞 주차장은 활기 찬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방송반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디제이박스는 인기가 높았고, 노들음악대 역시 저력을 보여주었고, 댄스반의 광란적인(?) 춤사위는 후원주점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보다는 약간 적은 수입을 올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올해에도 후원주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천원의 급식도 적자인데 급식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천원으로 급식비를 내리는 노들의 이상한 셈법은 매년 궁시렁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티켓을 파는 노들 사람들과, 한번쯤은 거절하고 싶을 텐데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티켓을 사주시고, 후원주점을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해 아름다운 셈법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교단일기]

그래 함께 있어 보자!

가나

작년 4월부터 노들야학에서 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두 학기 동안 초등과정인 국어3반 수업과 청솔2반 담임을 맡았다. 정돈되지 않은 내 삶을 하나씩 갈무리해보려 한다. 그 다음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실컷 놀아보고 싶다. 함께 놀 친구들을 만들 생각이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는 김호철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다. 노래패 ‘다름아름’이 장애인운동 집회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 사업을 기획한 분도 이 노래 제목에서 프로그램 명칭을 따온 것 같다.

노들야학이 올해 들어 시작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노들야학 학생인 김경남, 박주원, 정지민, 정혜운, 이준수, 정수연 이렇게 6명이 참여했다. 저녁에는 원래 있던 노들야학의 수업과 연계하고, 낮에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짜서 진행했다. 낮에 하는 수업이 있어서 야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통 ‘낮 수업’이라고 부른다. 나는 낮 수업에서 기초문해 수업 주강사를 맡았다. 화요일에는 연극수업을 보조했다. 전반기 프로그램은 4월 중반 즈음부터 7월 말까지 이어졌다.

내가 맡은 수업의 타이틀은 ‘기초문해’이지만 수업 시간에 한글과 수 개념 익히기 같은 것만 하는 건 아니다.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국어, 수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이 했다. 중국 음식점에 주문하기, 매니큐어 바르기, 마스크 팩 해보기 같은 생활기술 차원의 수업도 했다. 박물관, 미술관, 궁궐, 성당, 절 등 야학에서 가깝고 학생들과 가볼만한 곳들을 찾아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학생들과 여러 가지 수업을 해보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고심했던 것은 학생들과 잘 노는 것이었다. 뭘 하며 놀까 구상하다가 술래잡기나 비석치기 같은 ‘전래놀이’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실내놀이'를 해볼까 생각했다. 간단하고 쉬운 놀이를 하면 낮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웬걸!

수연 씨를 생각해보니 이런 놀이들을 무턱대고 하기가 좀 그랬다. 수연 씨는 손가락과 고개, 그리고 입 정도를 아주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만 몸을 쓸 수 있다. 이런 놀이들은 대개 뛰고, 잡고, 당기고, 밀고, 던지고 하면서 몸을 막 쓰는 놀이다. 낮 수업반의 학생들 대부분은 나이가 좀 있어서 체력의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이 거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놀이를 몸을 쓰면서 할 수 있겠지만 수연 씨는 그러기가 어렵다. 수연 씨가 이런 놀이를 함께 하려면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텐데, 매번 그걸 생각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터였다.

그러다가 잘 나오지 않는 홍철 씨를 대신해서 준수가 5월에 새로 낮 수업에 합류했다. 준수가 들어오며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생겼다. 준수는 먼 거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벽을 짚고 서서 걸을 수도 있다. 손이 조금 둔하긴 하지만 웬만한 작업들은 할 수 있다. 준수는 수연 씨보다는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만, 어쨌든 몸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 휠체어를 타는 준수랑 다른 학생들이 몸을 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 싶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런 자료에 나오는 운동이나 놀이를 함께 해보려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준비물이 필요했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다. 결국은 그런 놀이들은 체재놓을 수밖에 없었다. 몸을 마음껏 못 쓰는 뇌병변장애인과 몸놀림이 자유로운 지적장애인의 통합교육의 길은 멀고도 멀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연 씨랑 준수랑 함께 잘 못 놀았던가? 결코 그런 건 아니었다. 수연, 준수와 함께 놀이를 했던 때도 있었다. 수연 씨와 제일 처음 함께 했던 놀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낮 수업팀의 임당 선생님이 수연 씨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솔래에게 잡힌 수연 씨 손가락을 끊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풍선을 가지고도 놀았다. 임당 선생님이 빨대를 수연 씨 입에 물려 준 덕분에 수연 씨는 조그맣게나마 풍선을 불었다. 풍선 치기 놀이도 수연 씨와 함께 했다. 둥그렇게 서서 서로 풍선을 쳐내면서 떨어뜨리지 않는 놀이었다. 임당 선생님이 수연 씨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풍선을 쳐준 덕분에 함께 놀 수 있었다.

조스 선생님이 준비했던 '책으로 하는 비석치기'를 할 때도 준수와 수연 씨는 우리



랑 함께 놀았다. 임당 선생님이 비석까지 휠체어를 끌고 가주면 수연 씨는 임당 선생님이 책 대신 손에 끼워준 대형 롤 화장지를 가까스로 밀어 떨어트렸다. 결국 비석을 맞추지는 못해서 임당 선생님한테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는 했지만 말이다. 준수도 비석에서 가까운 곳까지 와서 책을 던져 비석을 맞혔다. 먼 곳에서 던져 맞추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데서는 맞힐 수 있었다.

수연 씨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이 내민 손을 만지다가 어느 손이 자기 짝궁의 손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도 했다. 수연 씨는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를 부르는 손놀이를 할 때, 상대방이 목 뒤에 찌른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를 알아맞히는 놀이도 했다. 이런 놀이는 수연과 준수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였다.

수연, 준수가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어울려 놀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른바 ‘낮 수업’사업 담당자인 한혜선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주셨다.

“수연이는 그냥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어쩌면 낮 수업에 오는 학생들은 낮에 이렇게 야학에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일지 모른다.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바

에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저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을 낮 시간에 모였고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를 하다 보니 심심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놀아보기도 했다. 어떻게든 함께 놀아보려고 부대끼다 보니, 몸을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이 아닐까.

낮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낮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경남 누나는 가족들을 찾고 싶어 한다. 혜운 누나는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지하철에서 길을 가끔씩 잃어버린다. 준수한테는 당뇨가 조금 있다. 지민이 형은 집에 있을 때 가끔씩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주원이 형은 야한 것을 좀 밝힌다. 수연이는 시를 좋아한다…….

낮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들과 조금은 친해진 느낌이 든다. 혜운 누나는 모두 함께 노래방에 놀러갔던 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생일선물로 팔찌를 사주셨다. 이틀 전에 내 생일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나한테 팔찌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낮 수업을 하면서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지민이 형과 술래잡기를 할 때였다. 노동절 집회를 할 때였을 거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지민이 형과 장난을 치다가 도망가는 지민이 형을 쫓아간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를 마구 지르며 달렸다. 얼빠진 사람들처럼! 그 뒤로 종종 나는 지민이 형과 이런 식의 술래잡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달리고 웃고 그랬다.

이제 2주 뒤에는 개학을 하고 낮 수업도 시작된다. 다음 학기에는 뭘 해야 할지 별 생각도 안 해보았다. 9월이 되면 우리들은 다시 야학에 어슬렁어슬렁 모여 있을 거다.

그러면 또 무언가를 하고 있겠지. 그래, 그렇게 그냥, 모여서 함께 있으면 되는 거다.

나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 다녀와서

조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일합니다. 저의 성격은 내향적인 면과 외향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일산 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에 참가했다. 가기 전에는 무더운 날씨와 쌓여있는 업무 때문에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또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자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막상 참가해 보니 참가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지역의 운동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활동가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260여명이었는데 나도 장애인으로 40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모인 건 처음 보았다.

대회 일정 중에 <와>야 들을 수 있는 '라디오'그뎨 그랬지>라는 순서가 있었는데 선배 활동가들과 노들야학 학생분을 통해 '버스타기'투쟁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그리고 '탈시설'투쟁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처음 자립생활 분야에 발을 내딛었을 때가 떠올랐고, 우리가 왜 운동(투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가로서의 내 모습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마지막 날에 있었던 활동가들의 장기자랑 시간이었는데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넘치는 끼가 부럽기까지 했다. 특히 박명애, 이형숙, 박옥순 선배 활동가가 '소녀시대'가 아닌 '소녀세대로 변신해서 부른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서울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때 못하는 노래지만 '나도 한 곡 부르고 올 곁'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대회 기간 중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 번째는 타 지역

나도 ‘활동가’ 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단체 활동가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함께 대회에 참가한 노들 단위의 활동가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좋았던 건 숙소 룸메이트였던 노들센터의 무림 씨와 정규 씨랑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조금은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잠을 많이 못 자서 많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보람을 느꼈다. 나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2박 3일 대회 기간 동안 내 손과 발이

되어준 활동보조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활동가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세상의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화이팅’을 외쳤다.

2015년 노들야학 모꼬지 ‘강촌별곡’

올해는 신입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민아영

노들에서 첫 사회생활 아
닌 사회생활을 겪으며 나
를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싶
은 게 많은 사람이라 좋아
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
문을 받으면 글썽요, 너
무 많아서... 라고 밖에 답
을 못하지만 요즘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중이다.
그리고 간간히 사진을 찍
기도 한다. 사진이 가지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 노들야학의 꽃, 실제 경험

노들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모꼬지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를 듣고서 도대
체 어떤 행사기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
를 하면서도 기존에 제가 생각해왔던 여행 준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걱정
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부른 마음을 안고 도착한 강촌역
에는 이미 도착해 역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내
색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 미소가 잔잔히 묻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히 식
사를 마치고 올라간 구곡폭포에서 폭포를 볼 수 없었던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
지만 더위가 이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나서 도란도란 친
구들과 둘러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반 소풍이었고 학창시절로 돌
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시간 이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학교에
선 볼 수 없던 학생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날려
낙타를 표현하던 준수형과 리듬 좀 탈 줄 알았던 혜운언니와 경남언니는 이번
모꼬지의 MV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학
생분들은 워낙 잘 노시는 분들이라서 부담 갖지 않고 프로그램 짜면 돼~”라고
했던 사랑 선생님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외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무에 능
하지 못한 저 또한 엉덩이가 들쭉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뒤



풀이가 시작되고 서로의 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민망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서먹한 얼굴끼리 어색함을 풀어내며 밤이 무르익었습니다. 간단하게 술을 먹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지하고 생각했던 저도 어느새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이런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하는 생각에 나름의 자기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맞이한 아침은 술에 찌들어 힘들게 기상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른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만 그

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꽤나 이른 아침임에도 이미 많은 인원의 학생분들이 일어나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학생분들도 그 시간을 이불 속에서 잡아먹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아쉽게도 저는 일찍 나서야 했지만 이 아쉬움이 다음 모꼬지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첫 모꼬지의 기억은 생각 이상으로 좋았고 생각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다음 모꼬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음주가무에 능한 우리 노들 학생분들이라면 어떠한 모꼬지도 그 나름대로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첫 모꼬지 후기를 마칩니다. :D



조승하

저는 9월부터 국어 2반 수업을 맡은 조승하입니다. 처음으로 수업을 맡은 거라서 아직 학생들과 많이 어색하지만 차츰 배워가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 내가 바로 레크레이션!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24살 조승하 신입교사입니다. 그럼 모꼬지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입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승천선생님과 같이 레크레이션 진행을 맡게 되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게 된 큰 이유는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서였고, 이번 모꼬지에서 처음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거여서 다들 재밌어 하실까 하는 걱정을 했었지만, 어떤 분들은 내년에 저한테 레크레이션 총 기획을 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레크레이션을 맡으면서 힘이 들었지만 학생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풀이 때는 학생들과 같이 참여해서 꼭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 들었고 대부분의 학생분들과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 재밌었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내년 모꼬지가 기대 되네요~ 그럼 저의 후기는 이제 안녕!



[형님 한 말씀]

고향에 다녀 왔습니다, -노를 병학

고향에 다녀 왔습니다. 일년에 한 두번 씩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서로간의 화합 하는 차원에서 하는 가족의 모임입니다. 늘 고향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면서 편안함을 함께 해 주는 고향... 7월 10일 ~ 12일 2박 3일로 고향에 다녀 왔습니다. 가는 날부터 비가 내리더니 오는 날까지 비는 내렸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았습니다. 갈 때 마다, 고향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변에 지인들은 점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고향은 마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래어 나고, 또 성장기를 보낸 고향이기에 남다른게 고향은 나에게 맘편한 곳이고 계속 내가 위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정을 나누는 가운데 2박 3일이란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이런 가족의 모임을 마련한 가족들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격려 하면서 점점처럼 늘 그렇게 살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 믿음, 사랑,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져서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큰 형님께서 계셔서 늘 든든함과 넉넉함을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큰 형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노력 또한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가족 모임이 존재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모임을 늘 아는 사람들에게 마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전 저의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 하고 존경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옆 동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소개합니다

민아영

노들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나름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글썽,
너무 많아서... 라고밖에 답을 못하지만 요즘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중이다. 그리고 간간히 사진을 찍기도 한다.



너른마당의 배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동네 한 바퀴] 코너를 맡게 된 야학
신임교사 민아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참
으로 떨리는 일입니다만 취재라고 하니 더 떨리는군요.
그래도 다른 야학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궁금
함에 어색함 따위 던져버리고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이 조금 확장해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에 들이닥쳐
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의 하나뿐인 상
근자, 배미영 선생님을 모시고 너른마당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들야학의 신입교사 민아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의 배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너른 마당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너른마당은 초중고 검정고시반이랑 한글 문해 교육반이 주가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수업으로는 미술치료반과 일본어수업이 있어요. 학생분들은 15~20명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매일 와서 수업을 받는 건 아니고 한 반당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4시간씩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구요.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술치료반이 가장 눈에 띄어요. 미술치료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미술치료반,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이죠. 수요일 5시 30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고 다음 학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흠

을 만지는 게 정서상 좋거든요. 저는 흙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깐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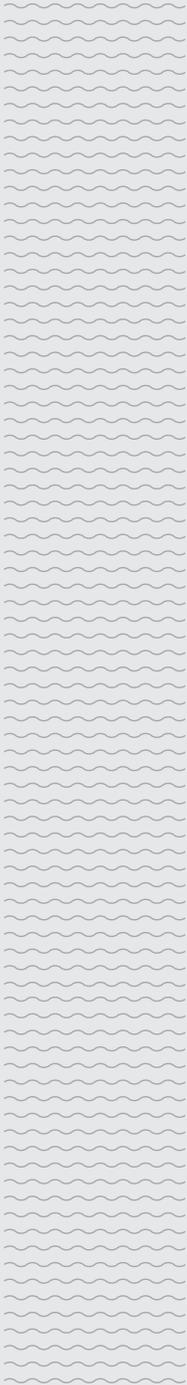
도자기라니,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네요! 하하. 미술치료반과 같이 검정고시나 문해교육 외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 지금은 미술치료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폭력대화, 스토리텔링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든 내년이든 다시 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본어 수업이 있어요. 어떤 학생분이 예전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화요일 5시 30분에 2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무척 기대 되는군요. 하하. 근데, 이사하는 게 보통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안암동에서 한 8~9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2배 정도 큰 공간이 필요했어요. 학교 형태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면 규모면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이전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크기니까... 너른마당의 지속·발전을 위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무실과 휴게공간도 마련했구요. 부담이 엄청 많이 되긴 했지만. 하하. 이전에는 공간이 작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아늑한 맛이 있었는데... 하하하 아직 예전 공간에 애정이 많이 남아서...



어딜 가든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하하. 그럼 수업은 9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 예. 9월의 첫 월요일 그러니까 9월 7일에 개학을 해요. 새로이 이사 왔으니 정리도 하고, 개소식도 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려고요. 개소식은 9월 1일에 합니다. 아~ 그리고, 미술치료는 8월 12일에 이미 개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8월 15일, 16일 1박2일로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동네 탐방프로그램에서 양평으로 캠프를 가요. 숙소 문제로 답사를 다녀와 봐야겠지만 너른마당 학생분들도 함께 가려고요.

모꼬지 같은 건가? 너른마당에는 학기 중에 나들이 같은 현장학습도 있나요?

... 숙박을 하는 수학여행은 없었구요. 춘천, 소요산, 수목원, 과천대공원과 가까운 경복궁, 미술 전시 등의 당일치기로 나들이를 다녀온 적은 있어요. 한 학기에 2~3번 정도는 이렇게 갔다 와요. 너른마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 학생들끼리 놀러 잘 다니세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2주 뒤 목요일 수업시간은 우리끼리 현장학습 시간으로 결정했다면서 영화나 전시회 등을 계획하셔서 통보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모습이 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현장학습을 많이 잡으려고 하면 한 번씩 제가 제재를 하지만... 하하

따뜻한 분위기에 너른마당 참 멋진 곳이군요. 배미영 선생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하. 너른마당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urmadang/> 로 와서 보시고, 연락주세요.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후원계좌
100-024-040339 (신한은행)

[노들은 사랑을 싣고]

캠핑퍼스트 이동환 동문을 만나다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상근자 학생으로 활동하는 김명학입니다.
연대사업부와 편집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서초동에서 '캠핑퍼스트'를 운영하는 노들야학 동문 이동환 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동환 동문은 1994년부터 1년 정도 활동하셨다고 해요. 우연히 언론에 기사 난 것을 보고 연락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1994년 그때 있었던 사람은 명학뿐이라고 해서 명학이 동문을 만났습니다. 현재 교사대표인 배승천 선생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승천○ 야학 생활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동환● 1994년이었던 거 같아요. 누나가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저는 누나랑 같이 정립회관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때 저는 건국대에 다녔고요. 휴학하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누나랑 상의를 했어요. 누나가 엄한 데 가지 말고 자기가 다니는 정립회관 안에 노들야학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일해보라 권유해서 야학에 들어온 거죠. 저는 노들야학에서 활동을 오래하지 않았어요. 그때 야학 교사는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뽑혔던 거 같아요. 특히 누나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쁘게 봐준 거 같아요. 수학 고등반을 맡아서 수업했어요.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형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그때는 야학이 언덕이라 술 한잔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했는데 저는 경오 형을 많이 업은 거 같아요. 다들 경오 형이 무겁다고 안 업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승천○ 94년에 야학 활동을 시작하시고 95년 겨울까지 하신 거 같네요.

동환● 네. 야학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은 경오형하고 또 저랑 동갑인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친구가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종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는데, 계단을 물구나무서서 다녔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장애인이 공부를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서 교육도 못 받았어요. 당시 건물들에 엘리베이터도 잘 없었고요. 비장애인 친구들이 올려주고 했다고 하네요. 물구나무서듯이 계단을 오르내리

는 그 친구를 보고 누나는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명학○ 노들야학에 다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떨지요?

동환● 지금은 가정도 있고, 사업도 하다 보니 다시 야학에 가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네요. 대신 장애인들의 활동에는 되도록 많이 참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들의 캠프를 주최하고 참가하기도 하면서 시간만 되면 뭐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승천○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하실 건지요?

동환● 네. 계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연말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나 반성도 하게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노들야학에서 활동한 것이 나의 전환점이 되어 남들보다는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명학○ 이렇게 연락이 되어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으네요.

동환● 네. 제가 15년간 연락처도 안 바꾸고 있으니 옛날에 야학 활동을 함께 했던 명학형도 만나고 반갑네요.

승천○ 회사 운영하시는데도 힘이 드실 텐데, 장애인시설(천혜원)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동환● 네. 제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요. 이 카페에서 요양원에 연간 천만원 정도 후원을 했어요. 카페를 처음에는 회원제로 운영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회원이 많이 나갔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은 하죠. 좁게 사는 중증장애인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인 카페 회원이 있었는데, 시설의 비리로 인해 정부 지원이 끊기고 하다 보니 후원 요청을 하셔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명학○ 지금 노들야학은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탈시설해서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환● 좋은 일이죠. 자립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많은 이들이 탈시설해서 지역에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들야학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요?

동환● 대학 2학년 때 복학하면서 야학을 시작했는데 3학년 때 누나가 결혼하면서 혼자 따로 살게 되었어요. 방을 멀리 구하다보니 힘들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야학을 그만두고 독일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 독일에 저상버스가 있는 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때 여러 사람이 들고 올라가고 했는데 말이죠.

승천○ 요즘은 우리나라도 저상버스가 많이 생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운행하는데, 보았는지요?

동환● 네.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더 발전해야죠.

승천○ 요즘은 혼자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도 있어요.

동환● 네. 알죠. 세월이 흘러 복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독일의 1995년도에 못 미치는 거 보니 안타깝죠.

명학○ 그러게요. 이동환 동문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 8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강경원 강귀화 강남훈 강문형 강미진 강병완 강복원 강복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유선
 강정자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동수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공명렬
 공승룡 광노근 광성자 구경민 구세나 구수준 구수준 구승기 구정서 구현아 궁경혜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영진 권영진 권윤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태국 권혁은 권혁은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숙 김경혜 김관희 김관희
 김광국 김근식 김기룡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명학 김명학 김명화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호 김민희 김범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영
 김상원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웅진 김웅진
 김우경 김원성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정 김이중
 김익현 김인숙 김재경 김재양 김재양 김재희 김정구 김정민 김정욱 김정욱 김정은 김정하
 김정현 김중윤 김중호 김중환 김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예 김지은 김지환 김진규 김진수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탄정
 김태승 김태우 김태인 김태훈 김푸른솔 김한민 김한준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지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혜진 김호진 김홍희 김홍재 김희재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해니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지현 남효진 남효진 노미경
 노상경 노상은 노유리 노익현 노현택 노혜련 류명욱 류승화 류승화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마미주 문건화 문경희 문명동 문명동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문창배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영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누리 박다정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진 박세호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시백 박시백 박예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민 박영환 박은국 박은정1 박은정2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주연 박주원 박준호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창숙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흥석 배경원 배덕민 배수자 배승천 배승천 배안나 배유주 배진숙
 배치녀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백진희 서기현 서기현 서남규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성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은수 서정록 서정웅 서주형 서호필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장기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무림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정규 송종호 송창국 송현정 신복순 신봉준 신봉준 신석희
 신수정1 신수정2 신숙희 신순영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원미 신은희 신임식 신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인섭 심정규 심정규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소진 안인숙 안정은 안정은 안종녀 안준희 안향미
 안희옥 양민화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연금순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종환 오지은 오진아 옥옥샘 우승명
 우시우 원재민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정윤 유창재 유창재 유희정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화숙 윤윤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훈1 이경훈2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금희 이기순 이기훈 이동은
 이동진 이라나 이라나 이리나 이문희 이미나 이미리엄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미정 이민규 이범민 이비할 이상림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수현
 이순웅 이슬기 이승민 이승범 이일찬 이일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란 이원진 이유미
 이유진 이윤옥 이윤정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1 이은정2 이은주 이장우 이재영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채린 이철우



후원방법 안내

①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만

우리은행 1005-201-820597

②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태곤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현진 이호연 이호준 이회국 이효정
 임광열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춘학 임태종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전옥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민구 정병순 정상엽 정상옥 정상옥 정선옥 정선옥 정승이 정수연 정연일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영 정우중 정우준 정운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재훈 정종권 정종훈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진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숙 조미정 조미정 조사랑
 조사랑 조성남 조성진 조수안 조아라 조원일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자영 조재범 조향숙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동업
 좌미경 주기중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률 진영옥 진영민 차무영 차순정 채이배 채경주 천성호
 천성호 천종민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식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최익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은 최진석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최호연 표미라 표은혜 표희철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우영 한혜선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허창 현영철 현정표 현장우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종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해진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권대상 김미선 김선심 김정지현 김지연 김진순 나영체 남완승
 류동훈 박경선 박윤기 박현규 사랑의후원금 서금석 송영자 신동길 신디 엠알엠글로벌
 오선실 윤종배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욱(부개성누가의원) 재)아름다운동행
 정옥순 차명수 최상희 티에이치엘 허병권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5월 해방의 나팔 김윤진 쌀 이십 킬로그램	7월 박정숙 비타500 한 상자 안미란 도넛 한 상자 길벗 10주년 기념 책자와 수건
6월 정호영 귀한 책 서른권 가람 김나라 커피 두 상자 스파인2000 오이소박이 장동한 감사 한 상자	8월 우리 실험자들 비누, 샴푸, 치약 스파인2000 순두부, 멸치, 미역 자연마을 비비크림, 아이크림 가득 큰 상자

*노들 후원물품 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홍은전 지음, 까치수업 퍼냄, 10,000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오리여는세상 퍼냄, 10,000원)
 잡곡(10,000원) / 20주년 “노들” 티셔츠(15,000원)
 매실청(900ml,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
 양말(3,000원) / 신문지 재생연필(10자루, 3,000원)



팟캐스트 방송 '듣거나 말거나 노들바람'이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꾸려갑니다. 노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장
 애인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장애
 를 아는가' 기대해주세요. ^^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쿵!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하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 트위터 @nodci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사람들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동하기 위해 다
치고 죽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하철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나라는 누가 만들까?』에서
홍은전 외, 나무야, 2015

